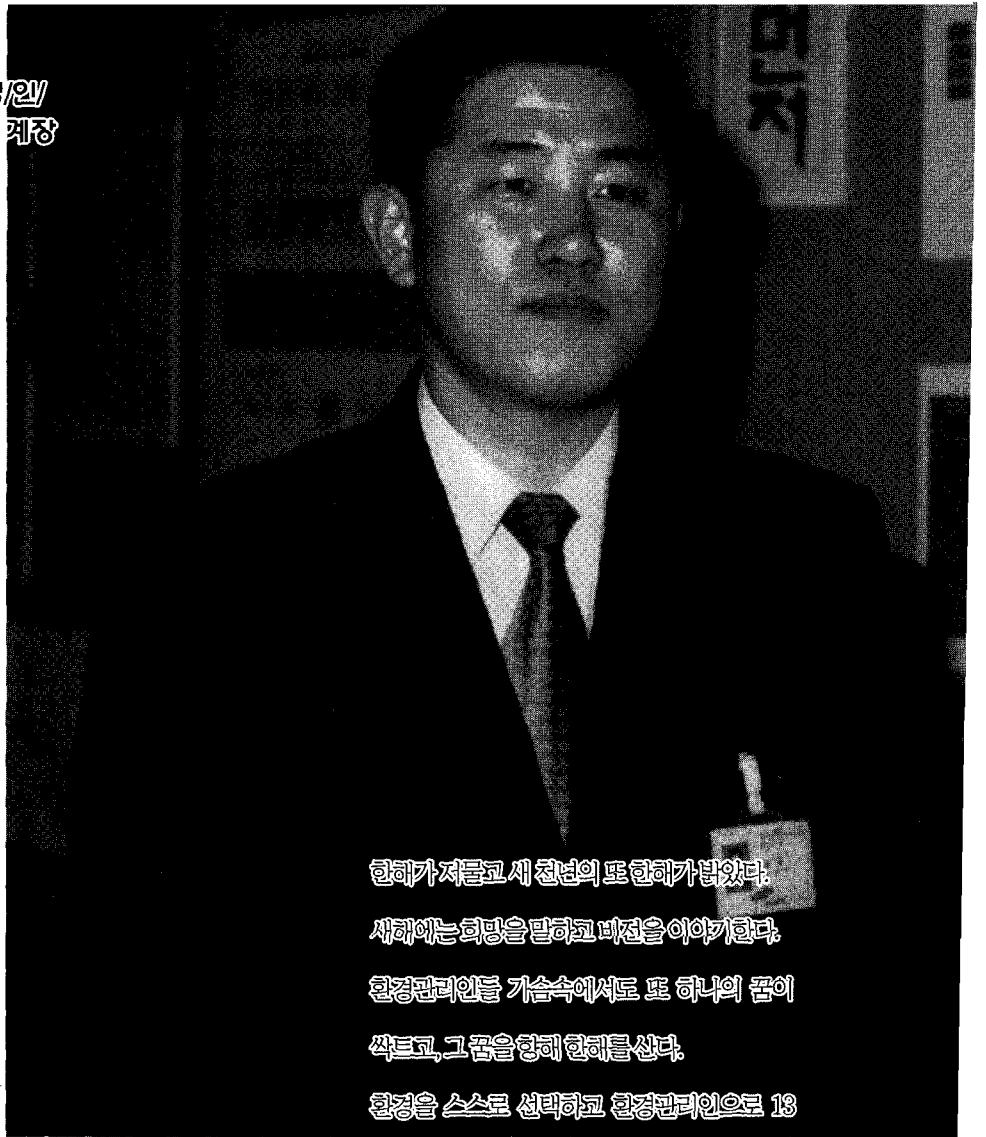


/이/달/에/만/난/환/경/인/
삼성서울병원 장상갑 계장



한해가 저물고 새 천년의 또 한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이야기한다.
환경관리인을 가슴속에서도 또 하나의 꿈이
싹트고, 그 꿈을 향해 한해를 산다.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환경관리인으로 18

여년간 일하며 또 다른 비전을 만들어 가는 삼
성서울병원 환경관리인 장상갑 계장을 새해
벽두에 '이달에 만난 환경인'에 초대했다.

[편집부]

나의 선택! 나의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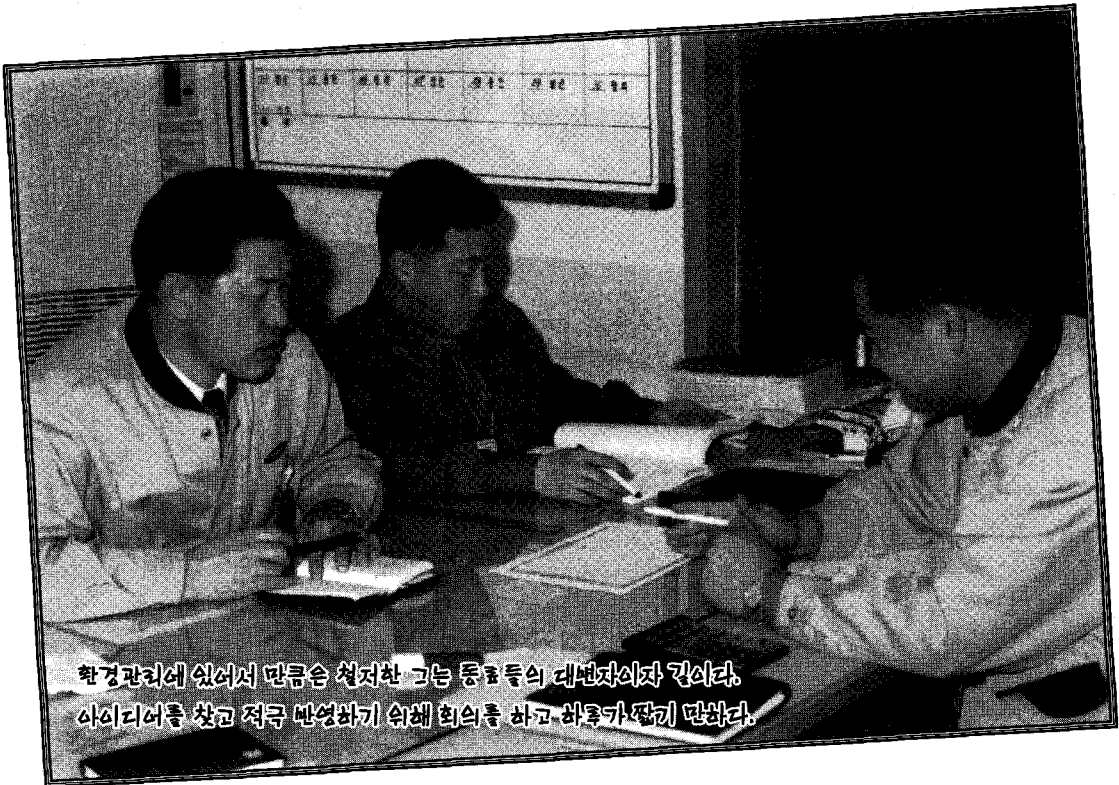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을 볼 수 있는 환경관리인 되야

“지난 85년 군제대 후 서점에서 환경관련책자를 보면서 미래의 삶을 좌우하는 환경에 매력을 느껴 복학하여 농과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대기·수질환경기사 1급을 취득해 환경관리인이 되었죠”

13여년간 염색업체, 호텔 등 여러 분야의 환경관리를 경험하고 현 삼성서울병원 환경관리부 중추적인 역할

21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실무경험에서 나온 지식과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그는 정책과 실무가 많이 달라 관리인들의 애로가 많고 실질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의 오류는 관리인이 잡아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한 그는 동료들의 대변자이자 깃이다. 아이디어를 찾고 적극 반영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하룻가 짧기 만하다.

을 하고 있는 장상갑 계장.

그는 스스로 선택한 현 직업 ‘환경관리인’이라는 직업의 비전을 스스로 없애고 만들어 가는 환경인이다.

환경관리의 애로사항이 많은 업종의 선택에서부터 남다른 환경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는 염색업체, 호텔, 병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두루 섭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 국립환경연구원 감염성폐기물 연구위원, 강남사랑 환경실천단 총무, 강남구 강남의제

그만큼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데...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공정을 다 알고 있어야 하며 치밀한 계획적인 공부를 해야 개선책이 나옵니다. 환경문제만큼은 원료에서부터 전 라인을 펴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실제 삼성서울병원의 다양한 폐기물에서부터 오염 내역을 알기 위해 열심하다. 그러한 것이 때때로 상사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평상시 묵묵하고 말이 없는 그이지만 환경관련해서 만큼은 양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대내외적으로 신뢰 받는 환경인이다.

“회사 경영진의 환경마인드가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의 특성상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고 있죠.”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11월 9일 개원하여 98년 별관증축으로 현재 1245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협력업체 포함 4000명이며 1일 외래환자 5000명, 입원환자 1200명과 내원객 3,000명이 왕래하는

종합 병
원 이
다.
환

“환경관리인 생활 10년 이상이면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별 정책자문에 참가하는 등 폭넓게 활동하는 환경인이 되어야 합니다.”며,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등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와 기술 습득도 필요한데 지자체 등에 설치된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있지만 시행착오가 많은 편이죠. 이러한 대처도 환경관리인들이 해나가야 합니다.”

경시설로는 본·별관 통합 폐수처리시설이 1일 300톤 처리용량에 평균 250톤 BOD, COD, SS를 10ppm 이하로 항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본관·별관·복지관의 정화조에서 1일 약 700톤을 장기포기식으로 처리하여 BOD가 평균 30ppm으로 배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감염성폐기물 증기멸균분쇄시설이 250kg/hrX2기가 설치되어 조직물을 제외한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 자체처리하고 있으며, 조화과쇄기, 스티로폴 감용기운전을 통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감량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수질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폐수를 관리하고 병원 특성상 폐기물의 종류가 많아 폐기물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2년 내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폐수무방류시스템(중수도장치) 도입, 폐기물 무배출, 전량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해보고 싶다.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외국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중이다.

그는 보다 경쟁력이 있는 환경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볼 수 있는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외국의 사례도 Study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 것으로 축적화 하는 개인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전 분야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환경관리인 생활 10년 이상이



면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별 정책자문에 참가하는 등 폭넓게 활동하는 환경인이 되어야 합니다.”며,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등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와 기술습득도 필요한데 지자체 등에 설치된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행착오가 많은 편이죠. 이러한 대처도 환경관리인들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 관리인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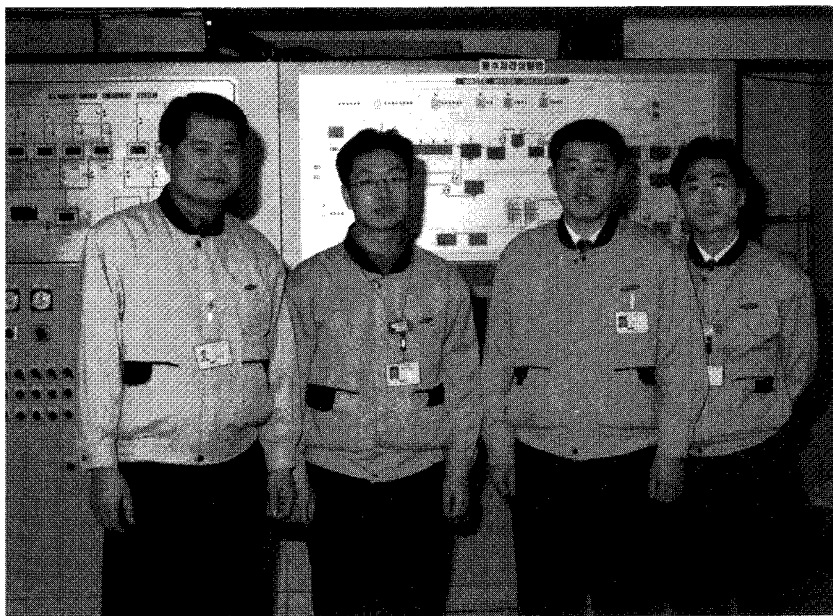
실제 다이옥신 기준이 우리나라는 NANO GRAM 기준인

반면 일본은 1000배 강한 PICO GRAM으로 강화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재활용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폐플라스틱 무산소 열분해 재생유화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기술이 시급히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회사의 환경관리 뿐만 아니라 전체의 환경보전에 기준을 두고 공부하고 익히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는 부끄럽지 않은 환경관리인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한다.

갖춰진 실무경험이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는 환경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는 환경이 이슈화되면서 지방환경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검찰, NGO, 경찰서에서도 환경점검을 하는데 환경사범이라는 인식아래 전수위주로 현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내부적으로는 잘해야 본전이고 100번 잘하다가도 1번 실수가 행정처분으로 연결된다면 외부의 압력 이전에 개인의 명예상 사직을 각오해야겠지요. 열심히 일하



회사 동료들과 함께...

는 환경관리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정이 유감이네요.”

스스로 선택한 환경이라는 직업에 한번도 후회해 본적 없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리더해 나갈 수 있는 환경관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삼성서울병원이 21세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나 듯, 환경인의 자리에서 21세기를 밝히려겠다는 그의 각오가 경제위기에 흔들리는 수많은 환경관리인들의 자리에 빛이 되었으면 한다.

환경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가족에게 소홀했다는 그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허락하는 한 가족해외배낭 여행을 해보고 싶은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의 준비로 바빴던 2000년도였다면 2001년에는 가족의 작은 소망도 이룰 수 있는 더 넓은 환경인의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